

The Gospel of Mark

Sermon 50 – Sermon Notes

Title: “Get out of my Father's house!”

Scripture: Mark 11:15-19

Date preached: August 20th 2023

Scripture: Mark 11:15-19

15 So they came to Jerusalem. Then Jesus went into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bought and sold in the temple, and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doves. 16 And He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wares through the temple. 17 Then He taught, saying to them, “I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18 And the scribes and chief priests heard it and sought how they might destroy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19 When evening had come, He went out of the city.

15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뀔 주는 사람들의
□□□□ □□ □□□□□□ □□□□□□ .

16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17 그들에게 “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Review

Before we examine today's portion of scripture let'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We are now nearing the end of the Lord Jesus' time of earthly ministry. Sometimes we forget just how short a period of time it actually was. Depending on how you measure it His ministry only lasted between three and three and a half years.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He forever changed the history of human-kind. Mark devotes chapters 11 to 16 of his gospel account to the final week of the Lord's earthly ministry. A period of time we commonly refer to as the "Passion week."

Two Sunday's ago we began the Passion week with the triumphal entry of Jesus into Jerusalem. Just as the prophet Zechariah predicted the Messiah rode into the Holy city on the back of a colt. The people reacted in a spontaneous outpouring of joy. They laid down their clothes on the road, waved palm branches and shouted "Hosanna." After reaching the temple and looking around the Lord Jesus returned to Bethany.

Last Sunday we looked in some detail at what happened on the following day; the Monday.

The day begins with an event that puzzles, or even troubles many gospel readers. It was the cursing of the fig tree. As the Lord is walking along He begins to be hungry. In the distance He spies a leafy fig tree. As I pointed out last time the fact that this tree was in full bloom indicated that ripe figs should be present. Several species of fig trees grew in Israel. The majority produced ripe fruit in the months of May or June. Some trees however produced figs in other months of the year. So whilst Mark notes that it was not the "regular season" for figs it was still possible to find figs on specific trees. The Lord Jesus was not a fool! He was a native of this region and knew which trees produced fruit and what signs indicated fruit should be present.

However when the Lord Jesus got close to the tree He found it to be barren. There were no figs to sate His hunger. It is what Jesus does next that shocks and surprises many. He curses the fig tree, condemning it to never produce fruit again. As I noted last time this is the only destructive miracle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In every other instance miracles are performed with a good or positive outcome. Only here do we see the Lord Jesus using His power in a seemingly negative or destructive way. This troubles many readers. It seems so alie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Lord Jesus. In this particular instance He appears petulant or even temperamental. Typically, we think of Jesus as being calm, measured and thoughtful. So what's going on here?

Well, the Lord Jesus in this instance is giving the watching disciples an object lesson. He will use the fig tree as a tool to communicate an important truth. The truth He is imparting is centered on the sin of hypocrisy. Jesus is using the fig tree to illustrate the deadly danger of hypocrisy. Hypocrisy may be defined as;

The practice of professing standards, beliefs or values, contrary to one's real character or actual behaviour. Especially the pretence of virtue and piety.

The best way to think of hypocrisy is to think of someone wearing a mask. The mask displays one emotion on the outside but it may be very different to the emotion the person behind the mask is feeling. So our question is whose hypocrisy is Jesus calling out? The answer is twofold. Firstly He is calling out the specific hypocrisy of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Secondly, and more broadly He is calling out the hypocrisy of the whole nation of Israel. They were putting on a show of worshipping God and pretending to be pious and godly. But the reality was it was a sham, a show, it was all fake. Just like with the fig tree they appeared to be healthy but were producing no fruit. They may have been fooling each other but they were not fooling God.

So the fig tree represents Israel. God had nurtured and protected His chosen people. He had fed and watered them. This was done out of His great love and mercy. However it was also done with a certain expectation. God expected His chosen people to bear fruit. They were intended to be the light that shone in the darkness. He wanted them to be His earthly representatives and impact the surrounding nations. This was not happening. They were producing no fruit. As a consequence what they had would be taken away. Soon the gospel would go out explicitly to the Gentiles. It would be they, not the Jews who would carry the gospel out to the nations.

The Lord Jesus's reaction to the fig tree ought to make us think. As followers of Christ much is also expected of us. We too should be producing fruit. If we are not, the consequences are serious. So let us pay heed and make sure we are doing what God expects.

Today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the Lord Jesus arrives at the temple.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지상 사역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짧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3 년에서 3 년 반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11-16 장을 주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에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2 주일 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고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환대했습니다. 길에 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성전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본 후 주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주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날은 많은 복음 독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주님은 걸어가실 때 배가 고프기 시작하십니다. 저 멀리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나무가 무성했다는 사실은 잘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함을 반증합니다. 여러 종의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자랐습니다. 대부분은 5 월이나 6 월에 잘 익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무는 연중 다른 달에 무화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 아니라고 기록했지만 여전히 특정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셨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토박이였으며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어떤 장소가 있어야 열매가 익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의 배고픔을 채워줄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는 것은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기적은 좋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만 주 예수님이 겉보기에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많은 독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회를 잘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참작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경우에 주 예수님은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무화과나무를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위선의 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의 치명적인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성격이나 실제 행위에 반대되는 기준 믿음 또는 가치를 고백하는 행위 특히 미덕과 경건을 가짐

위선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면을 쓴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면은 외부에 한가지 감정을 보여주지만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의 실제 감정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의 특정한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둘째, 더 광범위하게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착하고 독실하고 경건한 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짜, 보여주기 위한 것 모두 허위였습니다. 무화과나무처럼 건강해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양육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지
□ □□□ □□ □□ □□ □□ □□□□□□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진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머지않아 복음은 분명히 아방인들에게로 전파될 것입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방인들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게도 많은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입니다.

15 So they came to Jerusalem. Then Jesus went into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bought and sold in the temple, and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seats of those who sold doves.

The events that we are looking at today also of course took place on the Monday following Palm

Sunday. Following the cursing of the fig tree Jesus and the disciples arrived in Jerusalem and went directly to the temple. Before I explain what is happening here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the temple in Jesus day.


The first thing to note regarding the temple is what an awesome site it must have been. It was one of the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The temple complex which sat atop Mt Moriah was visible from many miles away. This was partly because of its immense size, but also because it was built out of gleaming white sandstone and it had gold trim around the top. It truly did glitter and sparkle in the sunlight. Don't just take my word for it. This is what the eyewitness Josephus wrote;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lacked nothing that could astound either mind or eye. . . . To approaching strangers it appeared from a distance like a snow-clad mountain; for all that was not over laid with gold was of purest white” (Jewish War 5.222–23).

We also need to take a moment to consider the vast size of the temple. Herod the Great determined to remodel the temple in around 20 BC. The second temple that was standing at that time was 500 years old and beginning to look its age. Herod, not content with just a minor face-lift went for a massive upgrade. He wanted the “new temple” to stand as his crowning achievement. The monument for which he was always remembered. He therefore employed a mostly slave labour force of 10,000 men to work on the project. The Temple Mount’s foundations were greatly expanded to encompass approximately 1.5 million square feet (140,000 square meters). In fact the temple mount complex occupied one-sixth of Jerusalem’s total area. Its walls were 457 metres by 297 metres.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that's five full size soccer fields in length by three soccer fields wide.

15 예루살렘에 이르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가셔서 매마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도 종려주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곧장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전에 예수 시대의 성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관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곳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있던 성전은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거대한  . 그것은 진정으로 햇빛에 빛나고 반짝였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목격자 요세푸스가 쓴 것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정신과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 . . 다가가면  사람에게는 멀리서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이는 금으로 압하지 않은 것은 모두 순백색이었기 때문이다”(유대 전쟁 5.222–23).

또한 성전의 광대한 규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20 년경에 성전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서 있던 두 번째 성전은 500 년이 지났고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Herod 는 외면을 약간 손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새 성전”이 그의 최고의 업적으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억되는 기념비. 따라서 그는 이 성전 사업을 위해 10,000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노예 노동력을 고용했습니다. 성전 산의 기초는 약 150 만 평방피트(140,000 평방미터)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성전 산 단지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 분의 1 을 차지했습니다. 그 벽은 457m x 297m 였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축구장 5 개 정도 길이에 축구장 3 개의 면적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largest part of the temple complex was the court of the Gentiles also known as the outer court. It is in the Court of the Gentiles that today's action will play out. It contained a covered portico built around marble columns thirty-five feet high.

What exactly was the court of the Gentiles? Well, as the name suggests it was the only place within the temple complex where non-Jews or the unclean could go. You might think that as a Gentile you might be able to disguise yourself and follow the crowds into the other parts of the temple. Think again. The laws designating where Gentiles could go were very strictly enforced. The inner temple court-yards were enclosed by a balustrade. At the entrances notices were posted in both Greek and Latin. The notices warned foreigners and uncircumcised persons that crossing into one of the other courtyards was punishable by death.

The Court of the Gentiles also served as the venue for two important temple functions. Firstly it was used for the selling of animals for sacrifice and as the place where money could be exchanged. Obviously pilgrims traveled to Jerusalem from many far-flung places. It's not practical to travel with your sacrificial animal. Imagine trying to travel on a train from Seoul to Busan carrying a sheep! Also imagine if you did travel all the way to Jerusalem with a sheep and then found out when you arrived that your animal was to be rejected because of some blemish.

What would you do with your sheep? As you can probably guess this was actually a scam. They wanted to sell you their animal, so they would intentionally reject the animal you had brought.

Therefore it made better sense to wait and buy your animal at the temple. This of course required a huge number of animals to be housed and ready to be sold. Have you ever wondered how many animals were sacrificed? Well Josephus records that during the Passover of 66 AD, so about 30 years after Jesus, worshipers required an estimated 255,600 lambs. That's a lot of sheep!

Naturally the people selling the animals knew that pilgrims had no choice but to buy from them, and so they exploited them. The markup was shameful and immoral. Some estimate they charged 16 times the normal price! Two pigeons normally sold for around \$0.25 (320 won) but if you brought them in the temple you could expect to pay around \$4.00 (5000 won). It's a little like movie theatres selling popcorn today. We all know that you can go to a supermarket and buy a huge bag of popcorn cheaply. However once you enter a movie theatre there's no such thing as cheap popcorn. The movie theatre knows people like to eat popcorn so it inflates the price. They make a lot of money from this practice and so too did the animal sellers in the temple.

The second function that took place in the Court of the Gentiles involved money. Pilgrims needed to change their currency. They were arriving in Jerusalem with coins from their home regions. In order to pay the temple tax (a half shekel) and buy an animal for sacrifice it was necessary to go to the money changer. When we want to take a trip to Europe we have to change our Korean won into Euros.

Where do we do this? Usually at a bank but if we are in a hurry we may elect to do it at the airport. I'm sure you are aware that the worst place to exchange currency is at the airport. The booths at airports offer the worst exchange rates. A very similar thing was happening at the temple. The poor pilgrims were being exploited.

So picture the scene. If it helps try to imagine the entrance to this church being filled with noisy market traders. How would you feel when you come into this place designated as a place of worship to be surrounded by corrupt, noisy and aggressive business men? I hope that you would be angry and indignant. The Lord Jesus certainly was. So now that I have explained the context let's get back to Mark's account.

성전 단지의 가장 큰 부분은 바깥뜰이라고 알려진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것은 35 피트 높이의 대리석 기둥 주위에 지어진 지붕이 있는 현관을 포함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비유대인이나 부정한 사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성전 단지 내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인 당신은 자신을 변장하고 무리를 따라 성전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재고해보야 합니다.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법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내부 사원 안뜰은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입구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그 안 내문에는 외국인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뜰 중 한 곳으로 건너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두 가지 중요한 성전 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파는 곳과 돈을 교환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멀리 떨어진 다양한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습니다. 희생 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양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차를 타고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또한 당신이 양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여행했는데 도착했을 때 어떤 흠 때문에 당신의 동물이 거절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실제로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동물을 팔고 싶어했고, 그래서 당신이 가져온 동물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다렸다가 동물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동물을 수용하고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희생되었는지 궁금합니까? 요세푸스는 예수님 이후 33년 이 지난 AD 66년 그 해 유월절 동안 순례자들이 약 255,600 마리의 양을 필요로 했다고 기록합니다.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당연히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그들에게서 동물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착취했습니다. 가격 폭리는 수치스럽고 부도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 가격의 16 배를 요구했다고 추정합니다. 비둘기 두 마리가 보통 0.25 달러(320 원) 정도에 팔리는데, 사찰에 들어오면 4 달러(5000 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팝콘을 파는 영화관과 조금 비슷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큰 팝콘 봉지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화관에 들어가면 싸구려 팝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화관은 사람들이 팝콘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립니다. 그들은 이 관행으로 많은 돈을 벌고 상점의 동물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의 딸의 두 번째 기능은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주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세(반 세겔)를 내고 제물로 바칠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환전소에 가야 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려면 한국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통은 은행에서 하지만 급할 경우 공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환전 장소는 공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항의 환전소는 최악의 환율을 제공합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 □□□□□□ . 시끄러운 장사꾼들로 가득한 교회의 입구를 상상해 보세요. 부패하고 시끄럽고 호전적인 사업가들에게 둘러싸인 채 예배 장소로 지정된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화나고 노여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확실히 그러셨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했으므로 마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ll three synoptic gospels record Jesus clearing the temple at the end of His earthly ministry. Only John has one at the beginning (John 2). The Lord Jesus is brimming with righteous anger. I have heard people say that it's okay to be angry because Jesus got angr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Our anger is almost always self-centred. We get angry because someone says or does something to us that we don't like. Here though Jesus' anger is born from His zealous desire to defend the honour of God his Father. I hope you can pick up on the difference. It's right that we feel angry that God is not being properly honoured or respected. It's wrong when we get angry because someone cut us up in traffic.

Jesus' response to the situation is dynamic. Mark tells us that He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bought and sold in the temple, and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What a sight this must have been. Our Lord and saviour driving these merchants out of the temple and flipping over their tables. Coins, and other goods being scattered everywhere. In acting in this way Jesus is showing us His authority as Messiah to clean up the corrupt nation of Israel. He was demonstrating that He was a faithful servant of the Lord and exhibiting His zeal for God's honour.

Before we move on let me briefly comment on Mark's signaling out of the dove sellers. The dove was one of the few sacrifices that the poor could afford (Lev. 14:22).

This meant that doves were in great demand and a large number had to be stored for people to buy. Interestingly it was the sacrifice that Joseph and Mary brought when they dedicated Jesus in the temple (Luke 2:24). Doves were also the prescribed offering for the purification of women (Lev 12:6-8; 15:29), lepers (Lev 14:21-22), and uncleanness (Lev 15:14). What's most significant for us here is the doves association with the poor. Mark wants to highlight that even the poor were being exploited. This was a fact that no doubt greatly grieved the Lord Jesus. He always showed great compassion and concern for the poor and down-trodden. Let us see what happens next.

세 개의 공관 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끝마칠 때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이 사건을 복음서 초반에 기록했습니다(요 2). 주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가득차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를 내셨기 때문에 회를 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거의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회를 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변호하려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공경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 체증으로 누군가 차선에 끼어든다고 회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 □□□ □□□□□□. 마가는 그분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을까요? 우리의 주님 구세주가 이 상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상을 두집으셨습니다. 동전 및 기타 물품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나라를 청산할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마크가 비둘기 판매인과 관련해 보내는 신호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물 중 하나였습니다(레 14:22).

이것은 비둘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수를 비축해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봉헌할 때 가져온 제물이었습니다(눅 2:24). 비둘기는 또한 여자(레 12:6-8; 15:29), 문둥병자(레 14:21-22), 부정함(레 15:14)을 정결케 하기 위해 규정된 제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가난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주 예수님을 크게 근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에게 큰 연민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6 And He would not allow anyone to carry wares through the temple.

The Lord Jesus was firm and insistent. God's holy house would not be used as place to buy and sell. It also seems to have been the case that people were using the temple courts as a convenient shortcut through the city. They were transporting all kinds of merchandise through the temple complex. Jesus is angered with these people who seem to have lost all sense of the sacred.

It is worth noting that Jesus was not opposing the temple system. He was neither trying to stop animals being bought and sacrificed in the temple, or preventing people from paying the temple tax. In fact He held the temple system in the highest of regards and this was why He was so angry. You see what He was adamantly opposed to was turning this sacred, and holy space into a market place.

Interestingly this had only been the case for a short time. The admission of merchants into the Court of the Gentiles was an innovation of the high priest Caiaphas (took office in 18 AD). Prior to this these task had been under taken outside the temple area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was not alone in finding this practice offensive. He was however the first to turn His grievances into action. Let us continue.

16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자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은 확고하고 끈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사고파는 곳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뜰을 도시를 통과하는 편리한 지름길로 또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 단지를 통해 온갖 종류의 상품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 제도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물을 사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거나 성전세를 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성전 제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셨고 이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단호히 반대하신 것은 이 거룩하고 신성한 공간을 장터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상인을 허용한 것은 대제사장 가이바(주후 18년에 취임)가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은 올리브 산의 성전 지역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불쾌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계속합니다.

17 Then He taught, saying to them, “I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The Lord Jesus here defends His actions by quoting two passages of scripture. What an important principle that is. God's Word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stand. We believe things, and take a stand not simply because we are personally offended, but because God's Word guides us in what we believe and hold to be true. So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should defend what's right by quoting scripture. We must demonstrate to people why they are wrong by directing them to God's Word. If they disagree then let them take it up with the God of the universe.

The Lord Jesus first quotes Isaiah 56:7

**Even them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make them joyful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their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Mark remember was writing for a largely Gentile audience. So the quote from Isaiah would have

held a particular resonance for them. God had permitted the Gentiles to come and worship Him in the temple. This indicated His great desire to bring them into relationship with Himself. However the Gentiles were restricted in where they could go.

As we have seen they were limited to just one, albeit large area. This was the closest they could get to the temple proper. This just happened to be the area now teeming with animals, money lenders and other commercial endeavors .

This meant it wa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Gentiles to come and pray in an undisturbed way. So the Lord Jesus was rightly angry that the religious leaders were denying Gentiles the opportunity to draw near to, and worship God. Also by cleaning up the temple Jesus was claiming that it belonged to Him, not the Jewish leaders. The quotation He cited from Isaiah presented the temple as God's "house." Therefore Jesus was claiming to be God.

He also quotes from Jeremiah 7:11.

Has this house, which is called by My name, become a den of thieves in your eyes? Behold, I, even I, have seen *it*,” says the LORD.

The temple leadership had made the temple a “den (literally a cave) of robbers.” When I was young we would often go into the woods to make a den. We would drag leaves and branches and make a secret place in which to hide. A place where we could be hidden and no one knew where to look for us. Thieves and robbers in the ancient world did much the same. They wanted a place in which to run to and hide.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were using the temple and its religious services to “cover up” their sin and hypocrisy. It is a desperately, shameful condition when the house of God becomes a place where unrepentant and active sinners can associate and hide. The temple or church should never become a place where wicked people can exploit others and profit from doing so. Today we should feel the same way about pastors who extort their congregation and demand they give offerings so that they can live in luxury.

We should note that it was not only the money changers and the people selling animals who profited. The Temple leaders also benefited from this system. This demonstrated just how corrupt and fallen the nation of Israel had become. God expected fruit but the nation was barren. The temple, the venue set aside as the place for people to meet God was equally barren. Intended for prayer it had become a place of profit. Let us see how Jesus' words are received.

17 그들에게 “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봉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여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왜 틀렸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주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 56:7 을 인용하십니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마가는 주로 이방인 청중을 위해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사야의 인용문은 그들에게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분의 큰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넓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단 한 곳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전 본당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물, 대금업자 및 기타 상업적 행위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경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깨끗이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 셧습니다. 그분이 이사야로부터 인용하신 구절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레미야 7:11 을 인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 의 말씀이라

성전 지도부는 성전을 “도적의 소굴(말 그대로 동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종종 굴을 만들기 위 해 숲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나뭇잎과 가지를 가져다 숨을 비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고 아무도 우 리를 찾지 못하는 곳. 고대 세계의 도둑과 강도도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 숨을 곳을 원했습니다. 대 제사장들과 사기꾼들은 그들의 죄와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성전과 종교 의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회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죄인들이 연합하고 숨는 장소가 되는 것은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성전이나 교 회는 결코 악인들이 남을 착취하고 이익을 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인들을 갈취하고 사치스 략게 살기 위해 헌금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에게 대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환전상들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만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전 지도자들도 이 제도 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 나라는 불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된 장소인 성전도 마찬가지로 불모지 였습니다. 기도를 위한 장소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봅시다.

18 And the scribes and chief priests heard it and sought how they might destroy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How do you respond when someone rightly calls you out for a sin? The way we react tells us a great deal about our spiritual maturity. Naturally none of us like to be called out and have our sins exposed. However when we are spiritually mature we accept the rebuke as it is intended. The person cares about us and wants us to stop what we are doing, repent and confess and then do better. They appreciate that this sin is hurting us and damag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When we are spiritually immature we respond with anger and pride. We tell the person calling us out that they too are a sinner. Who are they to point a finger at us.

How do you suppose the scribes and chief priests responded to Jesus? They were clearly in the wrong. The Court of the Gentiles was not the proper place to be conducting business. It was not right to take away the Gentiles place of prayer. What's more it was easy enough the rectify the problem. They could easily go back to selling animals and changing money outside the temple on the Mount of Olives. They could then keep the temple sacred as God intended. However they were

arrogant and prideful men. What Jesus had done threatened both their reputations, and their profits. He simply could not be allowed to continue. This situation was made all the worse because the people were astonished, or amazed at what Jesus said. The Scribes and chief priests were deeply concerned. The impression that Jesus was making was potentially dangerous. If the people began to follow Jesus then there could be civil unrest. Then the Romans would come in force and quell the rebellion.

This meant that the Jewish leaders would lose their power and influence.

Jesus did not just need to be stopped, He needed to be destroyed!

We see then the whole character of the passion week now taking shape. This hatred and anger against Jesus will reach its climax in His crucifixion in four days time. Let us look at our concluding verse for today.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우리 중 누구도 지적을 받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책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가 잘못을 멈추고 회개하고 자백한 다음 더 잘하기를 원하므로 책망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킴을 알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성숙할 때에는 분노와 교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책망하는 사람에게 그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갈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거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들은 장사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 있는 성전 밖에서 쉽게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의 명성과 이익을 모두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인상은 잠재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사회적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멈추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의 전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증오와 분노는 4 일 후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구절을 보겠습니다.

19 When evening had come, He went out of the city.

This momentous day ends with the Lord Jesus leaving Jerusalem to return to Bethany.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이 중대한 날은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How zealous are we for God's honour?

Just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courage it took for Jesus to cleanse the temple. The temple was full of people making a very healthy profit. Men who had developed a good living from extorting people. How might we expect such men to react when someone comes along and attempts to halt their business. They may very well have become violent and attacked Jesus. The Lord Jesus also faced possible arrest from the temple police. They didn't tolerate rabble-rousers. Neither of these possibilities deterred the Lord. He burned with a zealous anger for His Father's house, for God's honour. Nothing would stop Him from at least temporarily restoring it to how it should be.

What about us? Do we have a similar passion to defend God's honour? Do we have the kind of righteous anger displayed by the Lord Jesus. We may be called to defend God in very different ways today. It may be in standing up for what is right when everyone else thinks you are wrong. In the west today you will find yourself in this position if you call abortion murder, or say that homosexuality is a sin. That's what God calls them, and we should be zealous to affirm what God says. It may be in calling out people who have done something wrong even though this may cause you to be ostracized. Your actions may result in you becoming unpopular, you may be overlooked for promotion or even lose your job. But rest assured, you pleased God by standing up for what is right and true.

Standing up for God's honour requires courage and bravery. It's much easier to stay quiet or slink away. Let us pray then that the Holy Spirit gives us courage when we need it.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추하셨던 용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많은 이익을 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누군가 와서 그들의 사업을 중단시킬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리라 생각합니까? 그들은 폭력으로 예수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경찰에게 체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도 선동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중 어느 것도 주님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맹렬한 노를 불사르셨습니다. 그 무엇도,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예수님께서 성전을 합당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하려는 비슷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보여 주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낙태를 살인이라고 부르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르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배척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승진에서 무시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옳고 참된 것을 옹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면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있거나 살금살금 도망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 Jesus was concerned with what was really important, are we?

What do you think is the primary focus of most churches today? We'd like to say that their primary

concern was in accurately preaching and teaching God's Word and preparing Christians to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However in reality many churches today are not focused on these goals. Many are more concerned with growth and expansion. This is reflected in the kinds of services they offer and the multitude of additional programs they offer to people.

In our account today the Lord Jesus demonstrated what was most important. He was not concerned with how many people came to the temple. He was not worried about how many of them paid the temple tax.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animals that were on offer and how many were brought and sold. What He was concerned with was that God's house be a place for worship and prayer. He wanted people to come with this as their number one goal.

This should be our single-minded focus too. Many other things take place in and around the church. You may be a member of multiple groups within the church. Your Sunday schedule may be full up. Choir practice, worship service, lunch, a meeting, bible study. You may be so busy that you have lost sight of what is really important. So allow me to remind you. We come to church to worship our awesome God. It's all about Him. We come here each Sunday to offer Him the praise He deserves. In doing so we enjoy a time of connection and relationship with Him and then by extension with other fellow believers.

So let us be careful. Let's not become so busy and caught up in doing things that we lose focus on what is really important.

2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주요 초점이 무엇이라고 ?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확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들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오늘의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 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가져와 팔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염려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마음으로 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교회 내의 여러 그룹의 회원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일정이 꽉 찼을 수 있습니다. 합창 연습, 예배, 점심 식사, 모임, 성경 공부. 당신은 너무 바빠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이곳에 와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동료 신지들과의 연합과 관계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너무 바빠게 일에 몰두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맙시다.

